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인내와 헌신으로 교회를 일으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북한 개발소식

06

2018 June

통권 152호

| 이달의 주제 |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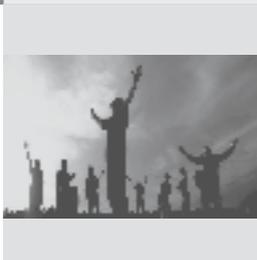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 개발소식** 2018 June

CONTENTS

이달의 주제 :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p>01 권두칼럼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p>	<p>09 칼럼 1 · 유관지 새롭게 출발하자, 통일선교 운동</p>	<p>16 칼럼 2 · 유석렬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p>
<p>22 칼럼 3 · 오성훈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p>		<p>28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4)</p>	
<p>32 북한소식</p>		<p>40 기도제목</p>	

- 중국 내 북한 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여성에 대한 단속, 체포와 복송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안과 북한 요원들의 위협을 넘어서 이제는 중국 당국이 시골 마을 촌장들까지 동원하여 탈북여성을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족과 생이 별하는 아픔에 노출된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하루 속히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가 선교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제적 여건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국경지역 감시와 통제, 공작 활동 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 추방뿐만 아니라 현지 조선족 교회들에 대한 강화된 통제로 많은 교회가 북한 선교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처에 도사린 위협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라디오를 청취하는 성도들과 주민들을 생각할 때 더욱 질 좋은 방송, 깨끗한 방송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픈도어 라디오 사역 및 극동방송과 북방선교방송 등 라디오 사역 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상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E-mail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6월 1일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통일의 때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에는 서로를 향한 ‘막말’을 서슴 없이 내뱉던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정상간의 대화를 가지게 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불가능해보였던 일이 김정은 본인의 입에서 언급되는 모습은 낯설기까지 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혼 혼한 분위기에는 불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간 북한과의 외교가 예기치 않게 틀어진 일이 많기도 했고, 갑자기 전향적으로 나서는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외교적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이 평화 가운데 가깝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어쩌면 통일의 그날도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환경에 대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비즈니스맨들이다. 벌써부터 각종 건설 및 토목 관련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답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약속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자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남한, 일본 등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 사이에 위치한 만큼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 밖에서는 변화에 발맞추어 북한이 가진 여러가지 가능성과 잠재성을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해 벌써부터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북한의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믿는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다. 더 나아가 무신론과 유물론, 이상숭배가 만연한 북한 사회에 복음적 사회원리와 가치가 반영되도록 앞으로의 통일 과정을 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위해 잘 준비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확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통일 선교, 통일 목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온 한국교회지만,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보며 우리의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 또한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밤새 신앙을 기다리며 미리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이다. 다가오는 통일의 때를 맞이하는 교회의 준비는 어떠한가 하며 그 실천방안은 무엇일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통일의 때,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필요하다

지금은 남한에 온 탈북자가 3만명이 넘어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많은 교회에서 통일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과 같이 생각하는 풍조가 퍼져 있었다. 통일을 이루는 것이 문제이지 통일만 되면 북한 전역에 교회를 건설하고 양성된 훈련된 사역자들을 금새 많은 북한의 영혼들을 복음화 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생각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같은 민족이지만 문화적인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들을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드릴 준비가 부족한지를 피부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미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도 그러할진대 북한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통일 독일의 교회상황을 보면 통일이 꼭 복음적인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님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독일 교회, 특히 동독의 교회는 공산 정권 시기에 동독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 담은 그릇으로서 독일의 변혁을 주도한 시민운동의 보루가 되었다.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위한 월요기도회로 대표되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평화적인 독일 통일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분단 상황에서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동독 교회가 있고, 공산화 이전 인구의 대부분이 신자였던 동독이기에 통일 이후 공산당에 의한 핍박이 멈추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동독 교회는 분단 시기와는 다른 의미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공산당에 의한 박해가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이 통일된 1990년부터 97년까지 동독의 교회 탈퇴자와 입교자의 비율은 낮을 때는 3.5:1에서 최고 7:1까지 기록했다¹. 입교자에 비해 탈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1명이 입교할

때 3.5명에서 7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통일을 통해 주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꺾인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통일이 교회에 큰 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통계이다.



〈독일 통일의 물꼬를 튼 평화 혁명이 시작된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청소년 축복식(Jugendweihe)’ 문제도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². 독일에는 14-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기념하며 교회에 입교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구 동독 정권은 교회 소멸을 목적으로 교회 입교식을 대체하는 무신론적, 반신앙적인 성인식인 ‘청소년 축복식’ 또는 ‘청소년축제(Jugendfeier)’를 성대하게 열며 교회 입교식과 청소년 축복식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도록 하였다. 50년대 초에는 전체 청소년의 20% 가량이 참석하던 이 축복식은 공산당의 강요에 의해 결국 90%가 넘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문제는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진 지금에도 이 행사가 동부 독일의 전통 행사와 같이 정착되어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사 자체는 공산 치하 때와는 다르게 탈이데올로기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교회 성년식 또는 입교식을 대체하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배제한 성인식으로서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통일 이후 약 10여년이 지난 99년도에도 10만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비록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무신론적 사고와 가치관은 동독 주민들의 삶에 뿌리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아마도 그 사정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가 깊고 박해가있었을지언정 교회가 보존되고 활동할 수 있었던 동독에 비해 북한은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가 짧을 뿐 아니라 심각한 박해로 인해 당국에서 운영하는 칠골, 봉수 교회 등 매우 소수의, 그것도

¹ 통일 후 동독교회의 사회적 기능 변화와 그 원인-. 독일어문학 26권 0호. (2004년 9월). P. 410. 에서 재인용)

² 주도홍, “통일독일의 청소년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 통일 후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역사신학논총 제 11집 (2006). pp. 166-199.

¹ Pollack, Detlef: Religiös-kirchlicher Wandel in Ostdeutschland. Opladen 2000. S. 25. (오영훈, “독일통일과 통일교회의 역할 -

여러모로 미심쩍은 공식 교회 외에는 지상 교회가 없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가 지하로 숨어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기독교는 민족의 적인 미제의 앞잡이와 스파이로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독일에 비해 주민들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학습 받는 주체사상도 김일성 우상화 부분을 제외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 라는 문장으로 상징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다. 김일성 숭배가 무너지더라도 그동안 학습되어 온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은 북한 사회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다. 게다가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실리 위주의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2017 주빌리 회개철야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통일이 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나설 때에 우리는 이미 남한의 목회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강력한 적인 인본주의적 문화와 이와 관련된 물신 숭배, 기복 신앙, 개인이기주의 등을 다른 모양으로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 남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대결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뿌리깊게 퍼져 있는 기복적 신앙관,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성도, 사회에서 보기에 부끄러운 비리와 죄악이 저질러지는 교회라면 북한에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시대정신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통일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인지를 묻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비전이 나뉘질 때마다 한국 교회의 회개와 회복의 시급성이 동시에 언급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제 나부터, 내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물질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본받는 복음적인 우리가 되도록 근본적인 변화와 돌이킴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그저 잘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과업이다.

교회 현장에서의 준비

세상에서는 경제적 가치나 민족적 소명, 또 평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북한을 평가한다. 모두 나름 일리 있는 관점이지만 교회는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 내에서 북한이라는 소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 받기 쉽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동안 교회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입장과 결부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교회 내외에 크고 작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미 정치색을 띄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교회에서 관련 주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교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먼저 교회의 리더십부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이야기 없이도 충분히 북한을 복음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민족 구령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와 회복, 평화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더 큰 비전 속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사실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궁극적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한 미사여구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가지 않는다면 결국 통일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교회의 리더십에서부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의 과거 경험과 학교에서 받은 교육, 또 뉴스와 각종 매체의 보도는 우리가 통일과 북한을 생각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교회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점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리더십에서부터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는 복음적인 태도로 북한과 통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북한과 통일을 위해 애써왔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것이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사역했던 이들의 고민과 시향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교계 내에 보수와 진보로 흔히 지칭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접근 방식을 함께 살펴보면 치우치지 않은 폭넓은 북한과 통일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의 변화는 성도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성도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는 보통 그리 깊지 못하다. 워낙 북한이 폐쇄적이기도 하고 북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었던 이전의 사회분위기 인해 오래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여러가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관심 밖인 성도들도 상당히 많다. 성도들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통일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기독교 통일교육은 크게 '통일준비교육'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³. 통일준비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경적 통일관을 제시하며 통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교육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이다.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간의 통일 정책과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애썼던 노력들, 또 이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와 신앙의 유산을 살펴보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통일준비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신앙적 기초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북한 바로알기 세미나나 강좌, 북한선교학교 등을 통해 성도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주제를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 주최한 2017 북한선교학교 강의 모습〉

기독교통일교육은 더 나아가 통일 이후도 다루어야 한다.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육은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다. 남과 북의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대하는 것이다.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한국교회이기에 더욱 관심가지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영역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접근해서는 배우기 어렵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과 공감의 정신으로 다름이 하나됨의 장애가 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육은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3 양금희,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의 통일교육", 교육교회 2013년 4월호 (2013), pp. 29-34

이런 맥락에서 국내 탈북민 사역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기성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받아드리고 '한 몸'을 이루어 가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다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의 교제하면서 여러가지 오해와 불편함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통일 이후 맞닥뜨릴 진통과 아픔을 먼저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해가는데 탈북민과의 만남은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 외에도 교회 차원에서의 국경지역 탐방 비전 여행 등을 통해 철책 너머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눈에 담아 오는 것도 통일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회 현장에서의 실천

교회의 체질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사역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 북한 선교는 통일이 이루어 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당면한 사명이다. 국내 탈북민 사역은 물론이고 북한의 영혼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을 위해서도 애써야 한다. 비록 북한이라는 선교지의 특성상 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일에는 제한이 있지만 전문 선교단체 및 대북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교할 수 있다. 북한의 숨어있는 성도들을 돕고 월경자들과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북한 내 NG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제의 앞잡이자 민족의 반역자로 그려지고 있는 북한 내의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의 NGO에 대한 태도로 볼 때 NGO 활동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복음전파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차단하지만 NGO 활동가의 개인적 또는 그룹의 신앙활동은 비교적 자유롭고 단체의 종교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일은 적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상태에서 사랑으로 섬긴다면 충분히 북한 주민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부터 통일 이후 현장에서 뛰게 될 실질적인 기독교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음적 통일은 단순한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구조와 시스템에 복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틀을 잡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전문인들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헌신된 선교사와 전문인 자원을 개발하고 적극 후원할 때, 이들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서의 사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교회 내 통일 감수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자, 통일선교운동!

유관지 (기독교통일포럼 공동대표)

의미와 가능성을 안고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카이로스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선포된 일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재림이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이다. 그런데 최근의 일들은 지금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카이로스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훈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훈풍이 열풍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트럼프나 김정은 모두 북미정상회담에서 판을 깨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 말 저 말, 여러 말을 듣고 있는 형편인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중간선거나 재선에 황색등이 켜질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0일에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는 입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말을 좀 강하게 하면 트·김, 둘 다 배수진을 치고 있는 장수의 형국이다.

이런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통일선교운동이 걸어진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잘 정해야 하는 일이다.

I. 통일선교운동, 이런 길을 걸어왔다.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운동이 걸어진 길을 송원근 박사(한선통일목회연구소장)는 ①반공운동사역기(1960년~1970년대) ②평화운동사역기(1980년대) ③대북섬김사역기(1990년대) ④통일일꾼양성기 ⑤통일연합사역기(2010년대 전후)로 정리했고, 오성훈 박사(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는 ①반공의 시기(1945년~1972) ②분열(보수와 진보의)시기(1972~1988) ③도약의 시기(1988~2000) ④수렴의 시기(2000~현재)로 나누었다. 용어와 연도 등의 차이는 있어도 두

가장 기초이면서 근본적인 북한선교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국경사역이든지 NGO 사역이든지 항상 큰 불확실성과 제한들에 노출되어 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 많은 재정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역이다. 통일 역시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아래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그간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확인한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북한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선교에 참여하기위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자체가 실질적인 사역이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는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애타는 마음과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일의 때를 준비할 때 이전에 맞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격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통일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를 보며 이미 많은 교회에서 통일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인간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급격한 변화가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통일의 때를 대비하도록 사람들을 깨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북한 정권의 실정과 공산진영 붕괴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어났던 90년대 대기근과 대량 탈북 사태라는 비극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북한의 동포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역을 하게 하셨다.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3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남한에 보내셔서 폐쇄적인 북한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게 하시고 간접적으로나마 교회가 사람의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당신의 계획과 사역에 초청하고 계신다. 이제 그분의 몸 된 교회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바라셨던 교회로의 회복을 성취하는 교회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각 교회들에게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문을 열고(open door)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분은 같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성훈 박사는 7·4남북공동성명(1972), 7·7선언(1988), 6·15 공동선언(2000), 10·4공동성명(2007)이 통일선교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4·27 판문점선언’ 역시 마찬가지이고, 머잖아 나올 ‘6·12 싱가포르선언’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한 박사(영남신학대 교수)는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를 ①분단형성기(해방~한국전쟁기) ②분단고착기(한국전쟁~4월혁명) ③분단의 확대·재생산기(4월혁명~유신말기) ④통일운동형성기(5공화국~6공화국 전기) ⑤통일운동 확산기(1990년대)로 나누었다.

필자는 이분들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현장체험을 더하여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운동이 걸어온 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방송중심기(1945~1970년대 중반)

분단직후부터 1960년대말까지 한국교회는 통일선교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교회재건이 시급한 과제였고, 분열과 6·25 전쟁, 이단의 발흥 등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선교와 관련된 일로는, 당시 조선기독교연합회(현 NCK) 회장이었던 김관식(金觀植)목사가 남긴 글에 북한선교에 대한 언급이 서너 줄 들어있고, 베다니교회(현 영락교회) 안에 ‘이북대표신도회’가 조직되어 이북교회 복구를 중심으로 한 ‘북한선교’ 개념이 형성되었고, 남북통일기원신도대회, 정전반대신도대회, 북진통일기원대회 등 단편적인 것이 전부였다.

그런 가운데 이 시기 통일선교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방송이었다. ‘공산권선교’(당시 용어)를 목표로 하고 그에 합당한 설비를 갖춘 극동방송(1956년 개국)과 아세아방송(1973년 개국)이 설립되어 많은 일을 했다.



< 1973년 아세아방송국(현 제주극동방송) 개국 >

해방 직후부터 설립이 추진되다가 6·25 전쟁으로 지연되어 1954년에 개국한 기독교방송 역시 통일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점은 「CBS 50년사」(2004년 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창사봉헌예배 녹취기록은 창사봉헌예배가 통일선교촉진예배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말 한 세 방송기구의 설립주체가 모두 미국의 선교단체들이었다는 점이다. 기독교방송은 RAVEMCCO가, 극동방송은 TEAM이, 아세아방송은 FEBC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교회의 형편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통일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 헌신에서도 한국스텝들이 피동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때때로 갖게 된다.

②조직화시기(1970년~1980년대 중반)

1970년 1월에 예정 통합 안에 북한전도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어 여러 교파가 북한선교를 위한 공식기구를 총회 산하에 두었다. 그리고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같은 목적을 가진 부서를 설치했다.

1977년 4월 29일에 설립된 기독교북한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운동에 한 획을 그으며 우뚝 서서 여러 일을 했다. 기독교북한선교회는 공식 출범 2년 전인 1974년 12월에 이미 ‘씨앗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③통일논의 활성화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지금까지는 ‘북한선교’가 중심축이었는데 여기에 통일논의가 가세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민간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통일을 말하려면 앞에 ‘멸공’이나 ‘북진’이라는 말을 붙여야 했다. 그러나 대학, 진보정치계, 특히 교회에서 평화통일논의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NCK는 1985년 2월에 이미 “한국교회평화통일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표했다. WCC, 미국장로회총회 등 외부의 교회기구들도 한국교회의 통의논의를 거들었다.

NCK가 1988년 2월 29일에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문”은 진보진영의 선언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교회 통일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의 7월 7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 발표되었다. 북방개방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 선언을 통해 교회의 통일선교활동에 제약을 주던 걸림돌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제거되었다.

1996년 12월 17일에는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문 역시 뛰어난 것임이었으나 발표주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사정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통일논의는 남과 북의 교회가 만나고 논의하는 일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④환경변화기(1990년대 중반~2000년)

앞에서 말한 “민족자존과 통일변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비롯하여,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대북지원 확대,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요인으로 통일선교운동이 크게 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하여 한국교회는 탈북민 선교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⑤백화제방기(2000년~현재)

2000년대를 전후해서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운동은 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통일선교운동이 걸어온 길에 대한 여러 사람의 시기구분에 ‘도약’ ‘르네상스’ ‘확산’, 이런 단어들 나오는 것을 이미 보았다. 이런 것을 모두어서 필자는 지금을 ‘백화제방기(百花齊放期)’라고 부른다. ‘백화제방’은 갖가지 학문, 예술, 사상 등이 발표되어 각기 자기의 주장을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백화제방기의 통일선교운동은 활성화·세분화(다양화)·전문화(심층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II. 통일선교운동, 이런 길을 걸어가자

①진보와 보수, 손잡고 같이 걷자!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의 노선 차이라고 대답한다. 맞는 말이다. 하나의 기를 들고 걸으면 참 좋을 텐데, 진보는 ‘통일’이라는 깃발을, 보수는 ‘선교’라는 깃발을 들고 따로 걷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것 같으니 같이 걷는 연습을 하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 배우자. 예의를 갖추자.

지난달 3일(목) 사랑의교회 2층 웨스트채플에서는 참 감동적인 모임이 하나 있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통일선교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통일선교 광장포럼이 그것이다. 공동주최 단체들과 10명의 강사진은 진보와 보수가 골고루 안배되어 있었다. 153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도 그랬던 것 같다.

이 포럼은 화합을 강조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각기 자신이 겪은 일들과 애로를 이야기하면서 진행되었다. 진보와 보수가 얼마든지 같이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했다.

필자는 이 날 성찬예식의 집례를 맡았는데 예문을 따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성찬이 끝난 다음에 참가자 하나가 다가와서 내 손을 꼭 잡기에 나도 힘을 주어 마주 잡아주었다..



〈올 5월 3일 열린 통일선교 광장포럼〉

②다시 일으키자, 북한교회 회복운동!

한국교회는 1990년대 후반에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가 이 일에 앞장섰는데, 북한교회 재건 강령과 원칙을 제정하고, 해방 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 2,850개를 남한에 있었던 교회들이 각기 재건을 담당하기로 하고서 재건담당 일람표를 만들고, 재건자료집을 발간하고, 참 고무적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내부사정으로 그 운동이 중단된 것을 지금도 여러 사람의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선 용어를 ‘재건’에서 ‘회복’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재건’이라고 하면 ‘건물의 재건’을 생각하기 쉽다. 그것도 우리 집안, 또는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는 교회를 그 자리에, 가능하면 예전 모습으로 다시 짓는 것으로 말이다. 센터멘털(感傷)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지형과 도시와 부락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재건’이라는 말보다 범위가 넓은 ‘회복’이라는 말을 쓰자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북한개발소식」 2013년 3월호(통권 89호)에 “뜻들을 준비합시다”라는 글을 기고한 일이 있었다. 예전에 교회들이 있었던 자리에 그 교회를 소개하는 뜻돌(標識石)을 하나씩 세울 준비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예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은 교회사적인 면에서도 기억할 가치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민족운동·사회개조 등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대사적으로도 기념물이 되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옛 교회 건물에 대한 향수는 기념비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지난 달 12일(토)에 열린 기독교통일포럼 5월 정기모임에서 강사인 안보전략연구소 배기찬교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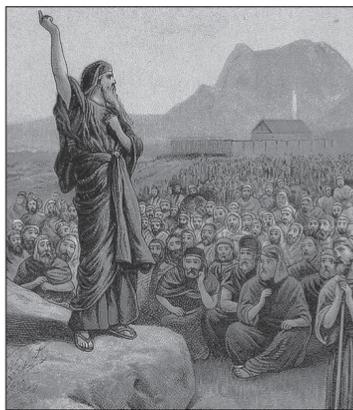
“북한교회 재건운동은 교회별로 하는 것보다 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북한의 한 지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울특별시의 교회가 평양직할시를 맡고,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의 교회들이 백두산이 있는 량강도의 교회 재건을 담당하는 식으로 말이다. 북한교류는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삼두마차를 이뤄야 하는데 교회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검토가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여겨진다. 배기찬 고문은 회심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기총의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도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또 탈북민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선교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이 일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고무적인 일이다. 필자는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북한전도에 나서는 것을 ‘원어민 교사의 외국어 가르치기’에 비유하곤 한다.

여하튼, 북한교회 회복운동, 다시 일어나야 한다!

③기록하자, 우리의 신명기를!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리고 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들이 길게 이어진다. 신명기 여러 곳에 이런 내용이 반복된다. 신명기 거의 전부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복지에 들어간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그들의 몸은 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강을 건너가 있었다.



신명기는 ‘가나안 진입 후의 도상 연습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명기를 ‘현재적 미래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다.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여기고 몸과 마음을 거기에 적응시키기 위한 성경이라는 것이다. 복지생활의 시뮬레이션이라고나 할까?

우리도 우리의 신명기를 기록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 해야 할 일들, 통일 이후에 지녀야 할 자세들을 조목조목 적어야 한다.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느냐, 점진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급진적인 통일에도 대비해야 하고, 점진적인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어느 경우나 ‘통합’은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이 영토적, 정치적, 물리적인 하나됨이라면 통합은 심리적, 정서적, 화학적인 하나됨이다. 통합이 없는 통일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남이나 북이나 통일 관련 행사에서 빠짐없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정부가 수립되기 전 해인 1947년에 태어났는데, 원래의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 정부가 수립되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의 소원은 통합”으로 바뀌어야 할 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NCKK의 성명과 북방개방정책을 천명한 선언에 대해서 말했는데 두 성명은 모두 30년 전인 1988년에 나왔다.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부른다. 이제 새 세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성명이 필요하다. 다행히 송실대 평화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통일선교 전문가 19명이 합심하여 ‘통일선교 언약’을 제정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기대가 된다.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준다. 통일선교의 새 시대는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해야 할 의무를 주고 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자.

2015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생활 70년만에 해방되어 귀환하기 시작한 일을 기억하면서 ‘분단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것은 1945년에 38선이 그어져서 영토가 분단된 것을 기준으로하여 그렇게 했다. 3년 뒤에 남과 북에 각기 정부가 수립되어 체제의 분단이 이뤄졌다. 필자는 이를 ‘분단고착화’라고 부른다. 올해는 분단고착화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걸어야 할 길의 방향을 바로 잡고 몸을 일으킬 때 2018년은 또 하나의 귀환 원년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자!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유석렬 (모퉁이돌선교회 이사장)

1. 통일과 선교의 최대장애, 북한의 신정체제

북한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체제와 같은 어떤 정치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라는 교리를 가진 이른바 '김일성교'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있다. 북한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북한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느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도 북한과 같은 정치 모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말한 것은 모두가 주체사상이요, 교리로 승화되고 있고 북한주민들에게 수령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과학이요, 예술이라는 것이다¹

북한의 신정체제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란 말로 정당화 시키고 있다. 김일성 사후 '백두혈통'이란 용어를 강조하는 것은 김일성의 신정체제가 김정일·김정은에게로 이어나감을 확인시키려는 것이다. '백두혈통'이란 김일성이 백두산 정기를 받고 태어나 북조선 왕국을 창시하고 그 직계자손들이 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한다는 의미이다. '백두혈통'이란 조작된 용어지만 북한에서의 권력은 여기에서만 나온다. 누구든지 '백두혈통'을 등에 업어야 권력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백두혈통'을 등지고서는 한시도 권력에 머무를 수 없다.²

'백두혈통'이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들과 그 직계가족들이다.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이뤄지는 '백두혈통'은 김씨 왕조의 최고 권력자들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한다. 북한에 '백두혈통'을 비롯한 신정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남북한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합치는 통일은 생각할 수 없으며, '백두혈통'이나 신정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북한선교는

1 북한에 한때 납치되었던 신상옥씨는 북한체제가 말로 김일성, 김정일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교조적이니 폭력혁명이니 하는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 「조선일보」, 2014.7.2

불가능한 것이다. 한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북한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백두혈통'과 참신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평양 만수대 언덕 김일성, 김정일 동상〉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을 이루고 북한을 구원하는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는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악령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의 현 체제가 건재하는 한 통일이나 선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적전쟁에서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이 북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고후 10:4)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통일과 북한선교

민족통일이나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한 총체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내부 실상과 대남전략을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대북정책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월남은 무력, 예멘은 이슬람, 독일은 돈으로 통일을 했지만 우리의 통일은 복음으로 이뤄야 한다. 무력이나 흡수통일을 한다면 서로 미움으로 만나 어느 쪽이든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밖에 없다.

복음통일이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즉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 믿는 자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3. 통일의 방법,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성경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했다.³ 즉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로 통일됨을 의미하고 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통일에 적합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과 협력하고 주변국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깨어 통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2:14)라 했다. 즉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남북한 갈등을 해소시켜 화평케 하신다는 것이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은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하여 남북간에 원수 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이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4. 북한선교의 방향

한국교회는 그동안 민족의 복음화에 소극적이었던 잘못을 돌이키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판단은 첫째, 지금은 북한선교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북한의 종교탄압의 기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통일이 이뤄진 후에 선교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했다. 둘째, 차선책으로 김정은 정권이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한 북한선교의 기반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선교는 악한 영과 치르는 영적 전쟁이다. 성경말씀도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했다.⁴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악한 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전쟁에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그루터기 신앙인들과 지하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성경과 신앙서적, 식량과 생필품,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3 「에스겔」 37장 19절

4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동안 한국교회들은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헌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선교는 이다음에 때가 오면 그때 가서 교회를 짓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헌금해 놓은 돈을 가지고 평양, 원산, 신의주, 회령, 함흥으로 들어가 대형교회를 지어 북한선교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가서 땅과 사람을 차지하고 군림한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기 보다 내 교단, 내 교회, 한 개인의 관할영역을 넓히려는 것이다.⁵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통일이 되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 일차적인 영적전쟁은 끝난다. 치열한 영적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외면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겠다고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일차적인 영적전쟁이 끝나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도 같이 끝날 것이다.



〈북한교회의 회복은 교회 건축이 아닌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통해 가능하다〉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들은 북한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고 후원하고 조력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지하교인들을 중심으로 재중 탈북 기독교인, 한국에 나온 탈북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교회를 짓고 평양대부흥 운동과 같은 성령운동을 재현시키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5 북한교회 세우기 연합회는 북한문이 열리면 10년 사이에 3,000개 교회 재건을 포함해 1만 5000개의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2006.10.28

5. 기독교인의 역할

1) 복음으로 '백두혈통 무력화'

무엇보다 통일이나 북한선교를 앞당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상화 체제인 북한의 '백두혈통'이나 '최고존엄' 개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백두혈통'을 지키려는 북한의 신정체제이기 때문이다. '백두혈통'이 견재하는 한 남북통일이나 북한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백두혈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아래로부터'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⁶ 북한 복음화 등으로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고취시켜 '아래로부터' 압박을 주어 수령독재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통일도 이룰 수 있고 북한의 복음화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는 이미 개방의 바람이 일고 있고, 장마당을 통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북한의 '백두혈통'을 침식시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다 인권을 무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이 '백두혈통'의 목을 조인다면 결국 체제는 무너지고 모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체제가 일어서게 될 것이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도 통일을 앞당기고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백두혈통' 체제에서 북한주민들은 정권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며, 김정은의 무차별한 공포정치 때문에 군인이나 정부관리들도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크게 떨어져 있다. 특히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돈이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풍토가 되었다.

한 마디로 북한의 변화는 북한 복음화가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백두혈통'을 깨는 전략이다.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복음풍선을 날려 보내고,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대북 복음방송을 지속하는 것이다. 재중 탈북민들을 신앙훈련을 시켜 북한에 들어가 지하교회 지도자로 활동케 하고 조선족 보따리 장사들을 통해 신앙서적 투입으로 북한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2)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야

남북한 통틀어 단일세력으로 제일 큰 것은 1천만을 헤아리는 기독교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북한의 복음화와 민족통일 역사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 정치는 권력을, 경제는 이익을 바라보나 기독교는 민족의 복음화와 통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손해 볼 줄 알아야 한다. 북한주민들을 직접·간접적으로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고 손해 보는 봉사를 통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주님의 품으로 떨어져 들어오도록 적극적인 대북선교와 민족통일의 기반을 이뤄내야 한다.

1989년 9월 동독의 비밀 예배처소가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특히 라이프찌히 니콜라이교회가 시민들에게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 천명의 시위를 이끌어 동독정부가 붕괴되면서 독일 통일을 이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북한지교회 교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힘을 길러 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한국교회 자체의 개혁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자체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나 교단들 사이의 불화, 경쟁, 상대방을 비하하는 태도 등을 버리고 교회 안에 팽배한 물질주의적 축복 개념도 벗어나야 하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에 지나치게 구애를 받지 말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한국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상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4) 북한주민의 재 사회화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북한주민의 재 사회화 문제도 미리부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생활 양식은 위에서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일을 하면 경쟁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으나 한국 사회는 자유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낙오 될 수 밖에 없다.⁷

통일이나 대북선교는 재 사회화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남한주민들과 특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의 정서를 알고 재 사회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귀순자들이나 탈북민들의 재 사회화 과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은밀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민족통일과 북한선교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⁷ 탈북자 여만철씨 부인 이옥금씨는 "북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되는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⁶ 북한의 지도층을 변화시키는 '위로부터' 의 방법은 그 실현성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

오성훈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PN4N) 대표, 예심교회 담임목사)

체제분단 70년과 대전환기

2015년에 “주여! 70년이 잤나이다”라는 애뜻한 외침이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는 말씀은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또 지나 남북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여 체제가 분단된 지 70년을 맞았다.

2018년 새해의 동이 트자마자 북한 신년사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한반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북미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대전환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봄바람은 지난 10년 가까이 남북 사이에 자리 잡았던 엄혹한 겨울을 단번에 녹이기에 역부족이었나 보다.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공군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빌미로 5월 16일에 예정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함으로써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 통일로 가는 길이 어찌 순탄하기만 하겠는가. 사실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영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군사와 같은 가시적인 영역과 함께 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 6:12)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광야에서 물질욕, 권세욕, 명예욕으로 예수를 시험했던(마 4:1~11) 사탄은 거짓과 어둠, 우상숭배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한반도를 분열의 땅으로 묶어두려고 한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진리의 허리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4~17)이 그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다. 따라서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은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일 수밖에 없다.

주가 주신 기회를 놓칠 것인가

필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 가시는 대전환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될까봐 매우 답답하고 두렵다. 평창동계올림픽은 88서울올림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서울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동서냉전을 종식하는 기회였고, 평창올림픽은 남북이 높게 쌓아올린 불신과 증오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그저 땅에 묻어두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마 25:18) 돌이켜보아야 한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 그동안 열심히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하던 몇몇 교회와 단체들은 주의 깊게 상황을 살피며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보인 태도는 무관심이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한편으로 이념의 종노릇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북한의 김정일이 제아무리 잔악한 독재자라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거스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 가시는 통일과 북한복음화의 길을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틀어막고 있는 형상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분단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의 새로운 통일한국을 한반도에 세울 수가 있겠는가?

깨어서 일어나라

우선 한국교회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엡 5:14)는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었다(엡 2:14). 복음의 방향성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중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려있으며, 고난당하고 있는 약자들이 있는 ‘주변’을 향한 것이다. 십자가 정신은 낮아짐이요, 비움이며, 섬김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남과 북 사이에 더 높은 담을 쌓으려고 한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며, 다스리려고 한다. 정치권력과 가까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사실상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작금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그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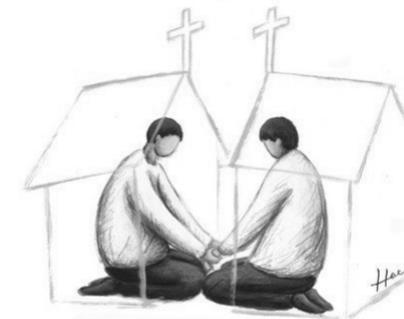
무기노동교회형을 선고받고 31개월을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와 교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극단적 대립, 거짓과 사기, 음란과 탐욕과 더러움, 사치, 부정부패, 청소년 폭력, 일확천금, 일상화된 중독... 그 원인을 어둠이 덮고 씩어버린 교회와 목회자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는 이 시대를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썼다.

한국교회가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렘 3:11)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반역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한반도에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가 중심을 향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주변성”을 회복하는 영적 갱신을 이루어야만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이요, 분열과 증오, 이상숭배로 가득한 남과 북에 진정한 살림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 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진리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20년 가까이 기도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님께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시간 중에 70%는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위한 기도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야 한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분열의 영을 묶고, 연합의 영을 풀어놓는 것이다. 우선 한국교회 안에서 교단과 교파, 선교단체 사이에 높이 쌓여져 있는 담들을 허물고, 십자가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일이 선행될 때, 민족의 허리에 가로질러져 있는 분단의 빗장을 빼낼 수 있다. 최근 이런 깨달음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한국교회 통일선교 영역의 연합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연합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앞으로 진행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효과적인 통일선교정책을 세우고,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단들이나 타종교는 중앙집권적이고 대북창구가 일원화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힘을 분산시키고 교단끼리, 대형교회끼리 경쟁적인 선교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와 해외동포교회에게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대북선교창구 일원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영혼구원이나 종교적 의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임하신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 14:17). 정의롭고 공평하며 약자에 대한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평신도 전문인들과 특히 청년·청소년·어린이 등 다음세대들이 성령 충만한 통일일꾼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남북 및 주변 4대강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보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국정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2018년에 들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맞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인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계층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특히 북한 내에서 본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적 대안세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인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 이들이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기도하자. 한반도에 이루어질 평화적인 북측 통일은 더 이상 인류가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밀림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원래적인 선함을 강력하게 복돋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가는 기도운동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은 성도의 개인적 삶의 경건운동,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연합운동, 구체적인 사역을 활성화하는 선교운동,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열방구원을 위한 하나님나라 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

통일기도가 단지 일회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삶의 습관화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PN4N에서 블로그(www.pn4n.org)를 통해 제공하는 민족중보기도편지를 활용할 수 있다. 교회 혹은 공동체는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정례화 된 통일기도모임을 갖는다. 이 경우 모임의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모임이 정착되면 교회나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연합은 분열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통일기도를 위한 연합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지역에 교단과 교파, 단체를 뛰어넘은 연합된 통일기도운동이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가 실천을 동반할 때, 그 잠재력은 더욱 커진다. 기도모임 때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을 모아 구체적인 통일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 혹은 개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흘려보내라. 어떤 사역을 후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남한 및 북한 출신 통일사역자들이 연합하고 있는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가 사역단체의 신실함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도운동은 예수의 재림과 열방구원이란 궁극적 목적을 늘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북한통일중보자는 반드시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선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급한 기도제목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과 북한복음화는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열방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나의 출애굽기 (4)

드보라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넌 나는 우리와 일을 했던 대방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브로커를 통해 무역 대방의 친척을 찾을 수 있었다. 듣게 된 소식은 암담한 것 뿐이었다. 우리와 거래하던 대방이 중국 내에서 불법 활동으로 붙잡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조립해서 주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새것이 아니고 현 물건 여러가지를 짜집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속에 걸린 대방은 거래하던 물건의 양이나 금액이 커서 뇌물로 무마하지 못하고 형을 받고 수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머리 속은 새하얗졌다. 당장 대금을 받을 방도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당에서 요구하는 돈을 상납하지 못할 것이 뻔할 뿐 아니라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생겼다.

연결된 대방의 친척 집에 잠시 머물면서 방도를 궁리해보았다. 당장 급한대로 돈을 마련해야 했다. 마침 강을 건널 때 흑시나 해서 집어 들고 온 약간의 골동품들이 있었다. 물건 거래할 때 끼워 팔던 것들이다. 골동품을 살 사람을 연결해서 물건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가져온 물건들을 보더니 가우푹 하면서 정확하게 값을 매기기 위해서는 진품 여부를 검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검수를 위해서는 큰 도시로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며 가져가서 확인하고 1주일 뒤에 오겠다고 했다. 너무도 순진했던 나는 그 말만 믿고 물건을 내어주고 말았다. 1주일만에 온다 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중국 최대의 골동품 시장인 베이징 판자위안 시장 (출처: 중국신문망)〉

마음은 답답하게 옥죄어 오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골동품도 사기를 맞은 데다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큰 비가 와서 독이 넘어갈 정도로 강이 넘쳤다. 이제는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워졌다. 대방의 친척집 독방에 숨어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연고도 없는 집에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다. 한 20일정도 지났을까... 머물던 집에서 지금 이곳도 공안의 단속이 심해서 위험하니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라고 권했다. 사람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지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내륙으로 들어갔다.

중국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머물던 대방의 친척집의 한 분이 나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내륙 어느 동네로 데리고 갔다. 가는 도중에도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다. 택시기사가 예민하게 검문소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내리게 해서 산을 돌아서 오도록 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무인 지경의 산을 3시간이나 넘어서 약속한 장소로 와서 다시 택시를 타기도 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도착한 어느 마을, 그 아저씨는 이름 모를 낯선 집에 나를 소개해주고는 자기 갈 길을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이 인신매매하는 집이었다. 할아버지 같이 주름 많은 얼굴에 키도 조그만 남자 한명이 그 집에 와서는 나를 데리고 갔다. 그때까지도 나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북에서 인신매매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배경지식이 없었다. 그저 유언비어로 떠도는 중국에서는 북한 여자들 피 뽑아 판다는 소리가 기억나서 나도 피 뽑히는 건가 싶어 무서워했을 뿐이다. 그 할아버지 같이 생긴 나이든 남자는 나를 데리고 근처의 자기 누나 집으로 갔다. 거기서 3일 밤을 있었다. 도대체 뭘 일인가 싶어 보니 그 사람이 나의 남편 될 사람이라며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다.

갑자기 맘에도 없는 남자와 함께 살아야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장의 인신매매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북으로 돈을 송금을 할 수 있을까 였다. 그 남자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나는 엉뚱하게 장사할 생각을 했다. 이전에 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금을 돈으로 받았지만 나중에는 옷이나 다른 팔 수 있는 물건으로도 받았다. 중국에서 옷이나 물건을 받아 파는 것이 훨씬 수익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중국에서 자리잡고 여기서 물건을 떼어 북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망가진 거래로 인한 대금을 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나는 가족하고 직접 거래하니까 중간에 사람때문에 문제되는 일도 적을 것이다.

이런 물정 모르는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자기는 무역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거라고 했다. 북에 있는 형제들, 아이들, 가족들이 생각났다. 나는 상황 파악도 안되면서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막 사정을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돌아다니다가 잡혀가면 끝장인데 그냥 갈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가는 곳은 농촌이라 외진 곳이지만 안전하다고 했다. 혼자 공안을 피해 다닐 자신이 없었던 나는 별 수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더 깊은 시골로 갔다. 그 사람과 함께 도착한 곳은 얼마나 외진 곳이던지 눈에 보이는 것은 산 밖에 없었고, 그 사람의 집은 북한에도 보기 힘들 정도의 허름한 낡은 시골 집이었다. 장사 같은 것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할 곳이었다.



〈중국의 한 시골집 모습〉

새롭게 남편 된 사람은 내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다. 동네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황망하고 창피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잔치가 어느정도 끝날 때쯤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나를 남편의 형님과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일으켰다. 남편의 어머니는 다리를 못쓰시고 운신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쳐서 그분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왜 내 운명은 이리도 꼬이는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다짜고짜 나 좀 보내 달라고 울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를 끌어안아주면서 앞으로 잘 해주겠다고 하는데 죽은 남편 얼굴과 비교되면서 이 아바이 같은 사람과 어찌 살지 갑갑하기만 했다.

나를 돈을 주고 사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북에서 내 남편이 단오날 죽었다고 하니까 단오 때 적당한 산에 가서 제사도 지내주었다. 생각해보면 보통 심성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왜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지 원통하기만 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그 시골 마을에 또래끼리 모이는 협동 조합 그루빠가 연령별로 있었는데 그 중에 술 잘 먹는 조직에서 같이 술을 먹었다. 나는 원래 소주는 못 먹고 맥주만 어찌다가 먹는 정도로 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자겠어서 술을 따라 마셨다. 중국 소주가 너무 독해서 한 잔 따라서 먹고는 뒤이어 냉수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술을 먹었다. 그렇게 항상 취해있었다.

나는 그 집의 막내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지내셨다.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대소변도 누군가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며느리 된 나의 몫이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원래 같으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맘에 없는 그곳 생활 중에 시어머니를 많이 의지해서 그랬는지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이 할 만했다. 나는 북에 있을 때부터 노인을 좋아하고 잘 섬겼다. 남편과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시어머니지만 나에게게는 할머니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할매 할매’ 하고 부르면서 내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 마다 “불쌍한 것... 너는 뭘 죄를 지었다고 이리 기구한 인생을 사냐” 하며 안타까워하셨다. 시어머니를 통해 허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다.

당시 그 집 만시형은 촌의 촌장이었는데 촌을 살리기 위해 돈을 벌자 해서 통나무를 배어서 팔다가 법에 걸려서 감옥 생활을 했다. 몇 년 후 감옥에서 나온 시형은 어머니는 만아들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시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했다. 만시형은 성격이 좀 이상해서 남을 잘 깔보고 가족 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서로 사이가 안좋았고 시어머니도 안가겠다고 하셨지만 만시형은 마을 주민들이 욕한다고 억지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께서 큰 집으로 가시자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 그 전에는 내가 술을 많이 먹어도 화를 내려다가 참더니 이제는 술을 먹고 오면 크게 화를 내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제하던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나도 지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싸웠다. 술도 계속 마셨다. 혼자서도 마시고 그루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가서 또 실컷 밤새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잊고, 또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동정도 받고 또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나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던 마을 사람들은 내 처지를 동정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실정을 욕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 댄에는 무슨 애국심인지 아니면 너무 북에서 세뇌 교육을 잘 받았던 건지 그 말에 괜히 발끈해서 입장 연설을 하곤 했다. 이 모든 사단이 바로 미제 도당과 남조선 승냥이 때문이며 김정일 장군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며 밤잠 못 주무신다고 더 길길이 외쳤다. 미제 앞잡이 놈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사상 무장을 막 외치는 나의 돌변한 모습에 주민들은 내가 하도 말을 잘해서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시장 감이라고 놀리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다. 출애굽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로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내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철없던 모습을 떠올린다. (계속)

1 남북정상, 11년만의 역사적 만남... “새 역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11년만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7일 오전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남북 정상은 오전 회담 일정을 가지고 오후에는 기념식수, ‘도보다리’ 친교 산책 일정 등을 소화했다.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남북의 수행원들이 참석하는 환영만찬이 열렸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즉 남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또한 남북은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의미가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비핵화를 위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북한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두차례 있었던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 부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먼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북한 개성지역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개성 사무소는 남북 당국간 소통 통로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오는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도 합의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합의를 이룬 것도 눈길을 끈다. 양측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합의도 이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차기 남북 정상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 공동선언문에 4차 정상회담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정상회담 정례화와 차기 정상회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 김정은 40여일만에 또 방중...다렌서 시진핑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랴오닝성 다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40여일 만에 두번째 방중이다. 5월 7-8일 일정으로 열린 회담에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상황, 공동의 관심사인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북한과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례를 감안할 때 한달 여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 정상간 만남 역시 지난 3월말 첫 회담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도 이번 회동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차단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대화를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왕이 외교부장을 서둘러 북한에 파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3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평양 방문...
미북 정상회담 합의 및 억류자 석방 성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월 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알려졌다.

접견 석상에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와 해당하는 절차방법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토의된 문제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아울러 억류된 미국인들도 석방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김상덕·김학송 씨를 미 공군 757기 전용기에 태워 이날 저녁 평양에서 출발했다.

이번에 풀려난 김동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함경북도 라선에서 체포돼 31개월 간 북한 당국에 억류돼 왔다. 김 씨의 억류 기간은 735일 동안 북한에 붙들렸다 풀려난 케네스 배 씨의 기록을 뛰어 넘는 최장기 기록이다. 또 다른 억류자인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는 각각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일했으며, 2017년 4월과 5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었다.

북한 매체들은 그간 '조미회담', '조미대화' 등으로 북미 간 대화가 예정된 사실을 거론했은 바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방송 같은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며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기대되는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두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4 폼페이오 "北 핵폐기땐 美 민간투자 허용...고기 먹을 수 있다"



〈5월 11일 미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면서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 정권교체 및 붕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면 북한 침공도 없다는 '4노'(No) 방침을 제시해왔다.

5 북한 김계관 “일방적 핵포기 강요시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VOA 자료사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5월 16일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맥스선더' 훈련 등의 이유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기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를 통보했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택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며,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 트럼프 “리비아식 북 비핵화 검토 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7일 백악관에서 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그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백악관에서 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리비아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면 확실히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그러한 견해(리비아식 해법)가 나왔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우리가 (리비아 해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비핵화 해법)이 작동되는 방식에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며 “대통령은 이것을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100%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단계적 해법인 ‘이란 모델’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돼온 선(先)비핵화-후(後)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이 아직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진다.

한편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리비아식 해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새로운 게 전혀 없다(nothing new)”고 지적했다.

7 종업원 집단탈북 논란 2년만에 재점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당사자들의 방송 인터뷰로 2년여 만에 다시 점화되고 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5월 10일 2016년 당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 씨 인터뷰를 방송했다. 허 씨는 방송에서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종업원 인터뷰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한국대사관이었다. 그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여기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종업원도 있었다. 이들의 발언은 "자의로 탈북했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설명에 배치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북한에서도 다시금 적십자 등을 통해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을 송환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다른 반론도 존재한다. 조선일보의 5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JTBC 보도에 나왔던 북한 식당 탈북 여종업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비로 유지되어야 할 자신들의 거주지가 언론에 알려진 것에 크게 놀랐고 언제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다"는 일반적 얘기를 했는데 '기획탈북이니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자신들의 발언 취지와는 다르게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에서는 일부 종업원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나 5월 17일 조명균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회 외통위에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여종업들과의 면담을 막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종업원들 스스로가 정부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국정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단 탈북 종업원 중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입국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돌려보내는 게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에선 이들의 송환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과 맞물려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탈북 종업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우려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며, 특히 북한 식당의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돌려 보내진다면 한국에 남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요청에 따라 탈북한 사람을 돌려보내는 선례가 생길 경우 다른 탈북민이 느낄 불안감 등 사회적 파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서 제 3국으로의 탈출은 매우 어렵고 각종 검문과 감시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있더라도 순탄하지 않은 여정인데 협박과 위협에 의해 강제로 함께 탈출을 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도 있다.

8 주빌리 기도 큰모임 '서로 화목하라' 를 주제로 6월 6일 개최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2018 주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 인터내셔널을 개최한다. 1·2부로 진행되는 이날 기도회에는 1부는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김희권 교수(숭실대 교목실장)와 허남일 목사(그날교회 담임)가, 2부에서는 '화목'을 주제로 하난 루카츠 목사(메시아니크유대인연합회 회장)가 각각 강사로 섬긴다.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기도합주회를 중심으로 청년주빌리의 공연과 화목서약식 등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 식전행사가 열리는 사랑의교회 통일광장에서는 북한사역단체들의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일 오후 2시엔 사랑의교회 바나바새가족홀에서 통일선교연합 공청회를 연다.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와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통일선교아카데미,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한반도 평화연구원 등 5개 통일선교 단체가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는 통일선교연합은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연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동 연구작업의 일환이다. 통일선교연합은 지난해부터 선정된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걸쳐 올 10월 발표 계획이다.

북한 기도 제목

1.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미 회담 성사와 남북 정상회담 실시 등으로 한반도에 대화의 바람이 불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 변화로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평화 가운데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국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각 국가의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협화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상황은 항상 요동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 자체가 무조건적인 축복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큰 어려움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열방을 섬기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통일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통일이 복음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 평화로운 통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3.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해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재빠르게 움직이는 세상과 달리 교회 현장에서 북한이나 통일은 아직도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4. 특별히 6월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올 6월은 한미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빌리 기도 큰모임 등 교회의 연합과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통일의 비전이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교적인 변화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북한 내의 통제와 박해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북녘의 형제, 자매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해 받는 북녘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신앙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북한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과 생활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